



도살자 네타냐후를 비호하는 바이든

지난 10월 7일 하마스는 미국의 중동 장악력이 전보다 약해진 상황에서 대대적인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다.

하마스 공격 전까지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상태를 우려하며 네타냐후 극우 연정을 견제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외양을 갖추고 '두 국가 방안'을 형식적이나마 유지한다고 약속해야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경비견으로서 미국의 중동 패권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바이든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이익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똑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이스라엘 대통령이 미국의 회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테러"가 평화를 파괴한다고 비난하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중동에서 이란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 쪽으로 더 당기려 한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 사이에 네타냐후 정부는 폭주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동부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극우 정착민들을 부추겨 팔레스타인 마을을 공격하게 하는 등 '두 국가 방안'의 토대를 허물고 있었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네타냐후는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가 지워진 이스라엘 지도를 공개해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무자비하고 냉혹한 공격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촉발시켰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



이스라엘 지원 위해 파견된 미 항모 제럴드 포드 함

은 인종 청소를 자행하는 식민 정착자 국가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자, 이스라엘을 후원해 온 미국 제국주의가 맞은 역풍이다.

미국의 고민

바이든 정부는 신속하게 이스라엘 지지와 지원을 선언하고, 항공모함 두 척을 동지중해로 보내고 지상군을 중동에 대규모로 증파했다.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한다는 뜻이었다.

또, 미국이 여전히 중동 질서를 다잡을 수 있는 세력임을 과시하고 이란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즉, 바이든 정부의 행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통제 불가능하게 번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사태가 중동에서 광범한 반제국주의 반란의 불씨를 당기지 않을까 우려한다.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지상군 침

공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가자 지구 점령은 안 된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 리처드 하스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이 미국을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 겪은 (실패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하스는 헤즈볼라의 개입, 서안 지구의 반란 등 전쟁과 저항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 "국제적 항의를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정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다."

물론 미국 지배자들은 자신의 "경비견" 이스라엘에 치욕을 만회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확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동 대중의 분

노를 제어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미국의 바람대로 흘러 갈지는 미지수다. 지금 중동은 중국·러시아뿐 아니라, 여러 지역 강국과 무장 조직들이 어지러이 상호작용하고 있어 통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 내부의 위기도 변수다. 이번에 이스라엘 군과 정보 당국은 하마스의 공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 허를 찔렸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권력자들 중에는 내부 위기를 외부 위협에 대한 대처로 돌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서방의 경비견이라는 처지를 무시하고 말이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몇 단계에 걸친 군사 작전을 계획했으며 이제 겨우 첫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번 위기를 계기로 미국 지배자들은 중동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공산이 커졌다.



중국·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자, 중국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지배자들과 러시아 지배자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해방의 대의에 전혀 관심이 없다.

푸틴은 시리아 내전에 관여해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며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높여 오면서도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러시아의 끼인하에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 공습 등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과 협력 관계를 의식해,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이스라엘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스라엘이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친러라고 주장했다.

10월 11일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곤란한 처지를 반영하는 말이다.

중국도 중동의 중요한 플레이어다.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가 깊어진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개선을 중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등 중동 주요국들을 브릭스(BRICS)에 가입시키는 등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두 악당의 만남 네타냐후(좌)와 푸틴(우)

팔레스타인에 호의적인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중동 정권들의 입장과 고려한 정도의 태도로 보인다.

중국 지배자들은 중동에서 날로 커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중동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이런 ‘안정’에는 국가 간 전쟁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터지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중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두 국가 방안’을 지지해 왔다.

하마스 공격 후 10월 14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과 통

화해 “중동 지역의 안정과 다른 세력의 분쟁 관여 방지”에 관해 논의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확전을 막는 데서 일정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 이달 말 네타냐후는 중국에서 시진핑을 만날 예정이었다. 이번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 정상회담은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다. 네타냐후를 중국 지배자들이 초청한 것은 실제로는 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과 해방 염원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준다.

아랍 정권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친구 아니다

아랍 정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늘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척하지만, 사실 서방 제국주의와, 또 이스라엘과도 협력하며 팔레스타인을 배신해 왔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자신들의 안정을 위협하면 매섭게 탄압했다.

아랍 지배자들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 운동이 자국 대중의 사회적 평등, 정치적 자유 요구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랍 정권들은 그런 염원을 들어줄 리 없는 잔혹한 정권들이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 직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논의하고 미국과 새 안보 협정을 맺으려 했다. 외교 협상이 타결된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가자 지구와 접한 국경 관문을 막아 버렸다. 가자 지구 주민들이 폭격을 피해 이집트로 대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집트 정권은 1970년대 들어 미국·이스라엘과 손잡았고, 그 덕분에 해마다 미국의 막대한 군사원조를 받는다.

요르단 경찰은 13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 수백 명이 서안 지구와 접한 국경 지대로 진출하려 하자 이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시리아 내전에 관여해 아사드 정부를 도와 아랍 혁명 물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지배자들과 대중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갈리는 쟁점이다. 팔레스타인 저항이 더 커지고 중동 전역의 연대 운동이 더 성장할수록 이 점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온라인 토론회

독일 혁명 100년 기념

잊혀진 혁명

독일 1918~1923년

1회 지금 시청 가능
제국을 무너뜨린 혁명과 구세력의 반동

2회 10월 25일(수) 오후 8시
1923년 독일공산당, 결정적 기회를 놓치다

참가신청
bit.ly/1004-1011-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1회 지금 시청 가능
제국을 무너뜨린 혁명과 구세력의 반동

2회 10월 25일(수) 오후 8시
1923년 독일공산당, 결정적 기회를 놓치다

참가신청
bit.ly/1004-1011-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